

## 18世紀 朝鮮時代 回甲宴과 回婚禮 繪畫에 나타난 食生活 文化에 관한 研究<sup>+</sup>

고 경 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과  
(2003년 9월 1일 접수)

### A Study on the Food Culture of the Festival for Elderly Person's 60<sup>th</sup> Birthday (*Hoegap*) and Marriage Anniversary (*Hoehon*) Appearing in the 18th Century Painting of the Chosun Period

Kyung-Hee Koh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ceived September 1, 2003)

#### Abstract

The Chosun Dynasty in the 18<sup>th</sup> century was a period of revival for science, art, and culture, bringing about *Silhak*(practical science), a new trend in the history of Chosun thoughts. In the history of fine arts, realistic landscape paintings and genre paintings were popular as realism became prevalent. From the aspect of food culture, in particular, the luxurious and elegant Korean-styled food culture was completed during this period.

*Iwanwasuseoksihoedo* was painted by Jeong Hwang (1735-1800) in 1789, depicting a banquet on an elder's 60<sup>th</sup> birthday. It is classified as a genre painting in the late Chosun Period but it contains things that comes into our heart, which are white porcelain with blue celadon pictures, white porcelain bowls, busy atmosphere of a banqueting house where food is being carried in a hurry and elders' serene appearance. All these things show the abundance of life, the room and comfort of old ages, and the beauty and relish of life in the well-arranged living ground.

*Hoehonyedo* was painted on an elder's 60<sup>th</sup> marriage anniversary by an unknown artist presumably in the 18<sup>th</sup> century is a painting as realistic as a documentary photograph. The work gives viewers pleasure and comfort because it describes not a mighty clan but the superb later years of an official who had lived right and upright life. In the aspect of food culture, it displays the food culture of the splendid sixtieth marriage anniversary of a Korean official through noble etiquette among family members, seat planning, unique table culture and high quality tableware including white porcelain with celadon pictures and pure white porcelain.

Key Words : Chosun period, 18<sup>th</sup> century, festival for elderly person, food culture

<sup>+</sup>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2003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교신저자: Kyung-Hee Koh,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kkok-2 dong, Wonmi-gu, Puchon 420-743, Korea Tel: 82-32-340-3313 Fax: 82-32-340-3111 E-mail: verokoh@catholic.ac.kr

## I. 서론

조선시대 후기(17-19세기)는 17세기 실학파의 대두와 18세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을 통한 서양학문의 유입으로 <실학(實學)>이라는 조선정신사의 새로운 면을 개척하게 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예기(禮記)>가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평생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례(儀禮)를 시행하고 있다<sup>1-3)</sup>. 오례(五禮)에는 길례(吉禮), 흉례(凶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가례(嘉禮)로 나뉘어지며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朱子嘉禮)에 의거하여 500년 동안 준수되어 왔다<sup>4)</sup>. 특히 유교문화가 추구한 <예사상(禮思想)> 중 효행 사상에서 나온 장수(長壽)를 기념하는 의례 중 3대수연(壽宴)이라고 하는 회갑(回甲, 태어난지 60주년), 회방(回榜, 과거에 급제한지 60주년)과 회혼례(回婚, 결혼한지 60주년)를 성대하게 기념하였다<sup>5)</sup>.

조선후기는 미술사적인 면에서 조선풍의 독창성과 사실주의 창작방식으로 진경산수(眞景山水)와 풍속화(風俗畫)가 유행한 시기이다. 17세기에 새롭게 그 기운이 일어났고, 특히 18세기 전반은 농경중흥을 기반으로 이익(李瀾, 1681-1763)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과 진경산수의 완성을 보았고, 후반에는 풍속화가 유행하며 박지원(朴趾源, 1737-1805), 박제가(朴齊家, 1750-1815)의 상공경제적(商工經濟的)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북학과 계열이 대두되는 시기였다. 19세기에 와서는 시대적 갈등이 심화되고 지배체제가 흔들리면서 형식화와 보수화로 회화의 사실주의가 퇴조되었다<sup>6, 7)</sup>.

식문화적인 면에서도 조선후기는 한식의 완성시대로 화려하고 품위있는 식문화의 특징을 가진 시대이다. 그리고 전후 17세기와 달리 18세기는 고추를 비롯한 남방식품의 유입으로 식생활의 다양화를 기록한 시대로 관련된 자료를 보면 17세기 자료인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sup>8)</sup>,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초의 자료인 <규합총서(閩閩叢書)><sup>9)</sup>, 18세기말엽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sup>10)</sup> 등이 있다. 그래서 18세기는 안정된 새로운 시대로 발돋움 하는 시대로 실학과 학자들에 의해 농업기술에 관한 농서(農書), 농업 외에 식품가공과 저장에 관한 기록인 <산림경제(山林經濟)><sup>11)</sup> 등에서 보면 그 당시 식품에 관한 관심이 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 13)</sup>.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시대적 식문화와 우리 선조들의 효행사상을 구현하는 경로문화를 기념하기 위해 기록된 회화로 1789년에 제작한 정황의 <이안와수석시회도(易安窩壽席詩會圖)>라는 사대부 회갑연(回甲宴)과 18세기로 추정되는 <회혼예도(回婚禮圖)>에 나타난 상차림, 식기류(食器類), 반상문화(盤床文化)를 통하여 학문, 예술, 문화의 문예부흥시기로 일컬어지는 18세기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식생활 문화를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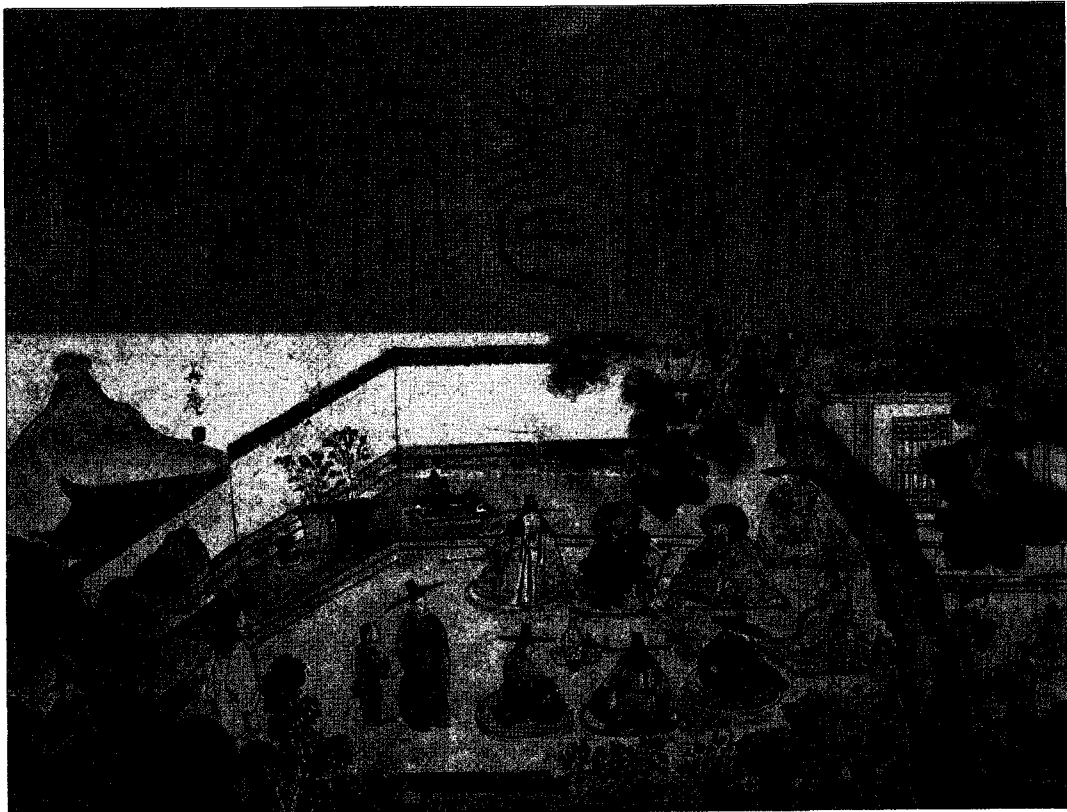
## II. 본론

### 1. 이안와수석시회도(易安窩壽席詩會圖)에 나타난 回甲宴 食文化

<그림 1>은 정황(鄭攄, 1735-1800)의 이안와수석시회도(易安窩壽席詩會圖)로 1789년의 작품으로 본래 횡축으로 되어 있다. 화가 정황은 겸재 정선(謙齋 鄭敎)의 손자로 그의 구체적인 행적은 확실하지 않으나 그의 조부의 화풍을 이어받아 진경산수(眞景山水)를 많이 그렸고, 때로는 이처럼 실경을 배경으로 한 인물도에서도 그 시대의 식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983년 동산방화랑(東山房畫廊)이 기획한 <朝鮮時代後期繪畫展>에 처음 공개됐다<sup>14, 15)</sup>.

이 시회첩(詩會帖)은 축머리에 <이안와수석시회도축(易安窩壽席詩會圖軸)>이라는 당대의 화가 유한준(兪漢鑄, 1726-1811년)의 제시(題詩)와 <그림 1>에 생략되었으나 좌우측에 역시 유한준의 서(書)와 이 환갑잔치에 참석한 이들의 축시(祝詩)로 꾸며진 회화이다. 서문(序文)에 의하면 1786년 9월 선영(宣寧) 사대부인 남씨(南氏) 백종(伯宗)의 회갑일(回甲日)에 문사(文士)들이 그의 장수(長壽)를 축하해주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하고 몇 년 더 거슬러 올라간다. 본래 한사지북(漢師之北)에는 사대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청풍(靑風)에는 김씨(金氏), 자운(紫雲)에는 남씨(南氏), 옥류(玉流)에는 유씨(兪氏)가 제일 오랜 집안이었고 남백종(南伯宗), 김정포(金正晡), 유한준(兪漢鑄)이 동년배 친구였다는 얘기가 적혀있다.

의관정장(衣冠正裝)을 한 노인들의 의연한 모습,



〈그림 1〉 정황(鄭槐): 이안와수석시회도(易安窩壽席詩會圖) 1789년, 지본담채 25×57cm, 서울개인장

앞뜰에 자리를 펴고 앉아 흥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 그림의 초점이며 삶의 풍요함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 <예기(禮記)> 1편 곡례(曲禮) 27장에 보면 인생 일대의 생활과정의 예정표가 기록되어 있다. <十年日幼學 二十日弱冠 三十日壯有室 四十日強而仕 五十日艾服官政 六十日耆指使 七十日老而傳 八十日耄 九十年日耄 七年日悼 悼與耄 雖有罪 不加刑 白年日期)>로 <사람이 나서 열 살이 되면 유(幼)라고 한다. 이때에는 배운다. 20세가 되면 약(弱)이라고 한다. 이때에 아내를 가진다. 40세가 되면 강(強)이라고 한다. 이때에 처음 벼슬한다. 50세가 되면 애(艾)라고 한다. 이때에 관정(官政)에 복무한다. 60세가 되면 기(耆)라고 한다. 70세가 되면 노(老)라고 한다. 이때가 되면 가사(家事)를 아들에게 전한다. 80세, 90세를 모(耄)라고 하고 7세를 도(悼)라고 한다. 도(悼)와 모(耄)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형신(刑訊)하지 않는다. 백세가 되면 기(期)라고 한다. 이때가 되면 부양(扶養)된다>라는 의미이다<sup>1)</sup>. 위의 내용에서 六十日耆指使 라는 의미는 <60세가 되면 자신이 스스로 일선에서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남

에게 지시하여 시킨다>는 연령을 기념하는 회갑연을 표현한 회화이다.

<그림 1> 작품에서 아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화면 앞쪽 좌측에 활엽수 중에서 먼저 푸르름을 토해 가장 늦게까지 색을 잃지 않는 버드나무가 있고, 우측에는 붉게 단풍 든 나무와 해묵은 오동나무가 설정되어 후원(後園) 담장과 의 공간거리를 명확히 해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담장 아래 가지런한 화분이며 수석(壽石)에선 주인공의 따뜻한 손길과 선비의 취향이 엿보인다. 인물의 표정과 몸 동작이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고 실제감 있게 표현된 것은 당시 사회 전반의 사실기풍(寫實氣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sup>16)</sup>. 왼쪽 하단에는 손님이 타고 온 나귀와 마부, 오른편 하단을 확대한 <그림 2>는 손님들에게 분주하게 반상 위에 수북하게 쌓은 음식과 술상을 나르는 두 명의 시동과 가체머리를 한 아낙네가 항아리 같은 것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예기>의 제 45편에는 향음주의(鄉飲酒義)는 어진이를 존중하고 노인을 기르는 의미로 술을 대접하는 예(禮)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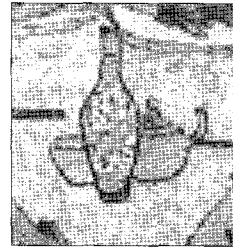


〈그림 2〉 이안와수석시회도(易安窩壽席詩會圖)의 부분

하였다<sup>3)</sup>. 〈그림 2〉에서 주병(酒瓶)을 끌어 앉고 있는 어른의 동작과 시선은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동작 등이 잔칫집 분위기를 돋구어 준다.

레비스트로스는 식품은 문화적인 소산으로 생활 문화와 사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을 재료로 하므로 그 시대의 식품선택, 채취 및 요리방법, 식기 등이 식문화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요소라고 했으며, 특히 식기(食器)는 식문화를 자연과 문화로 구별하여, 그 시대의 생활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였다<sup>17)</sup>.

조선시대 도자기문화를 보면 17세기 초에는 임진왜란(1592-1598년)의 피해를 복구도 하기 전에 병자호란(1636-1637년)이 발발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특히 재료를 수입해서 만드는 백자청화는 그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 현재 남아있는 예가 거의 없다. 이때의 백자는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듯 어두운 회색 회백자(回白磁)의 백자로 거칠게 구워졌다<sup>18)</sup>. 17세기 후반에는 사회가 안정되어가며 백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되었으며 백자철회(白磁鐵繪)와 백자철채(白磁鐵彩)가 제작되었다. 백자철회는 달 덩어리 같은 둥근 항아리에 굵은 필치로 자유롭게 그려진 구름과 용이 주로 등장하는 백자이다. 18세기는 문화의 전성기로 식기문화에서도 알 수 있다. 백자가 유행했던 시기로 조선시대 백자에는 아무 문양이 없는 고전적인 유백색



〈그림 3〉 이안와수석시회도(易安窩壽席詩會圖)의 부분

(乳白色), 설백색(雪白色)의 순(純)백자와 표면에 코발트계의 청색안료로 그림을 그린 백자청화(白磁靑華) 등이 유행하였다. 백자청화(白磁靑華)는 유약을 입히기 전의 그릇 표면에 코발트계의 청색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순백자와 마찬가지로 잡물의 함유가 전혀 없는 순도 높은 장식계 유약을 그 위에 씌워서 번조(燔造)한 것이다. 그 문양은 주로 회화적인 매조(梅鳥), 송죽(松竹), 매화(梅花), 산수문(山水紋)이다<sup>18)</sup>.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급 백자청화의 회화적인 문양(紋樣)은 전문화원(專門畫院)에서 그려졌다는 기록이 있어서 백자청화는 조선시대 회화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sup>18-21)</sup>.

식문화적 차원에서 〈그림 3〉 중앙에 위치한 식기를 보면 청화문백자주병(靑華紋白磁酒瓶), 잔과 붉은색의 주전자가 보인다. 붉은색의 백자철회(白磁鐵繪)는 백자태도를 사용하고 철분이 많이 함유된 자토(瓷土)로 문양을 그린 자기(瓷器)는 15세기경부터 시작되어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sup>21)</sup>. 이와 같이 백자철회가 부분적으로 문양을 그린 것이라면 백자철채(白磁鐵彩)는 자토로 그릇 표면 전체를 바른 것으로 붉은색을 나타내며, 제작시기는 주로 17세기 중엽부터 번조(燔造)되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경에 세련미를 보였다<sup>21)</sup>. 그림을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릇의 색깔을 통해서 18세기에 사대부 계층에서 유행 하였던 붉은색의 백자철채 주전자 인듯하다.

## 2. 회혼예도(回婚禮圖)에 나타난 食文化

〈그림 4〉는 작자미상의 회혼예도(回婚禮圖)로 18세기 작품으로 추측하며, 오늘날 마치 기념사진과 같이 섬세한 筆致로 그린 이 일련의 그림은 동일작가의 그림으로 모두 중앙에 접힌 자국이 있고 박락(剝落)이 심하다. 지난 1977년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그림 4〉 작자미상: 회혼예도(回婚禮圖) 18세기 추정, 건본채색 24.8×37.9cm,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未公開繪畫特別展〉에 다른 한 폭과 함께 출품된 작품이다. 이 두 그림 외에 이 화첩 속에 보이는 세 폭은 평복차림으로 잔치에 임하는 장면과 정복차림으로 회혼연회장(回婚宴會場)으로 나아가는 모습, 노부부가 자녀를 거느리고 맞절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는 모두 5幅으로 이루어진 화첩 중의 한 폭으로 회혼례(回婚禮)를 소재로 한 회화이다<sup>14)</sup>.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구도는 차일(遮日)과 용마루선으로 구획되어 화면 중앙에 마름모꼴의 공간이 형성되며, 계화법(界畫法)으로 인물을 제외한 배경에 자를 대어 기둥이나 지붕선 등을 곧게 그렸다. 이 점은 이 화첩 전체에 있어 공통된 점이기도 하다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시점을 잡아 비스듬한 부감도(俯瞰圖)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식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당시 名望있는 집안의 회혼례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이 그림은 큰 대청마루 안쪽에 주인공老夫婦가 좌정해 앉아 있고 반상과 주안상이 있으며, 좌우에 각기 2열로 남녀를 분리해 서열 순에 의해 자리잡고 앉아 독상을 받고 있다. 특히 첫번째 줄의 남녀 모두 머리에 꽃으로 장식하고 상차림에도 같은 종류의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남성의 경우에서 1열은 서열 순서대로

앉아 있으며, 맞은편에는 부인들이 정좌한 듯하다. 2열의 일부 남성은 수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집안의 웃어른 인듯하다. 이 그림에서도 〈예기〉에 기록된 대로 남녀부잡좌(南女不雜座), 남녀부동석(父子不同席)으로 배치되어 있다. 원근법과 다르게 남성의 상차림은 여성의 상차림 보다 크게 표현하였다<sup>2)</sup>.

음식상에는 온갖 과일, 떡, 약과, 호두, 잣, 전 육, 편, 해산물을 푸짐하게 마련하여 높게 쌓는다<sup>22)</sup>. 〈예기〉 67문에서 상 차리는 법을 설명한 대문을 보면 〈凡進食之禮 左設右載 食居人之左 羹居人之右 膾炙處外 醢醬處內 葱塗處末 酒醬處右 以胞脩置者 左胸右末〉라고 하여 〈무릇 음식을 올리는 예는 효(脍, 뼈가 붙은 고기)를 왼쪽에 놓고, 자(載, 크게 자른 고기, 또는 산적)를 오른쪽에 놓으며, 밥은 사람의 왼쪽에 놓고,羹(羹, 국)은 사람의 오른쪽에 놓는다. 회(膾)와 적(炙, 구운고기)는 바깥쪽에 놓고, 식초(醢, 식초)와 장(醬)은 안쪽에 놓는다. 총예(葱塗, 찢과 蒸葱)는 끝에 두고, 술과 미음은 오른쪽에 둔다. 포(胞, 말린고기, 육포)와 수(脩, 포를 두드려서 생강과 계피로 양념한 고기)를 놓는 자는 좌구(左胸, 왼쪽에 굽혀서 놓다)와 우말(右末, 끝이 오른쪽을 향함)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sup>. 회화

에서 표현된 상차림만으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사대부의 회혼식의 특수한 상차림이며 정결하고 아름답고 품위와 격식을 갖춘 상차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회혼 부부의 상차림은 큰상과 좌우에 작은 상이 한 개씩 함께 차려져 있다. 그 앞에 장수를 비는 뜻에서 술잔을 올려 헌수(獻壽)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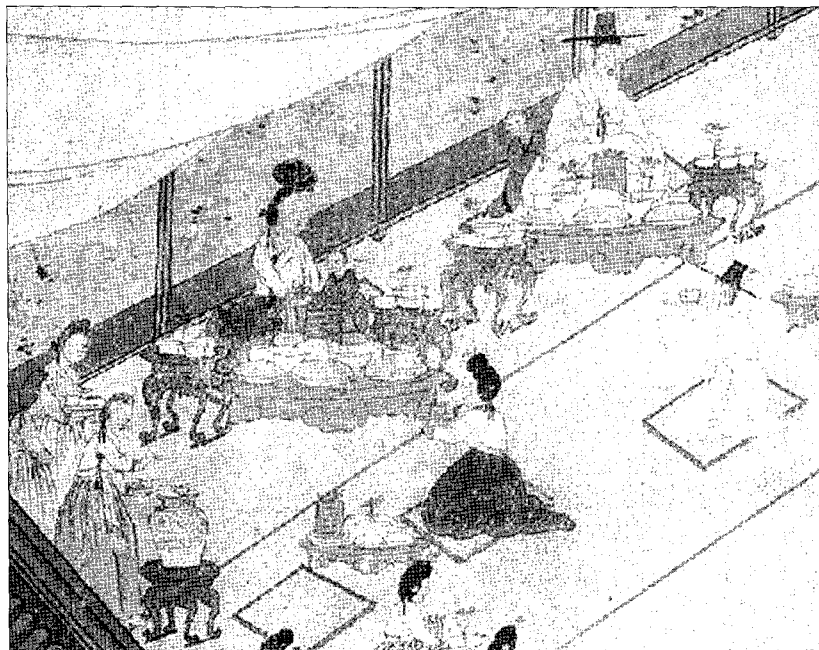
이 회화를 통하여 시사한 한국의 반상차림은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독상(獨床)차림으로 대접하는 것이 기본 풍습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정의 어른, 빈객(賓客), 친지 등에게도 조석상(朝夕床)은 반드시 외상(外床)차림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찾아 드는 빈객이나 하속(下屬)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찬방, 마루, 광 시렁 위에 반상용상(飯床用床)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외상차림의 접대규범은 가부장제도(家父長制度)와 존장주의(尊長主義)에서 온 대가족제도에서 가능한 식문화를 볼 수 있었다<sup>4)</sup>.

그 외에도 마루에 깔린 돛자리며 방석(方席), 소반(膳), 식기(食器) 등은 그 당시의 식문화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좌식(座食) 문화에서 돛자리, 방석과 그에 따르는 소반문화는 유일하게 중국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았다. 소반(膳)은 식사 때 식기를 얹는 물건으로 식반(食盤), 반(盤), 반상(盤床), 식상(食床) 또는 상(床) 등으로 부르며, 특별히

치수에 얹매이지 않고, 총칭해서 보통 소반이라고 부르고 있다<sup>23)</sup>.

우리나라 소반 중에서 지방색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대표적으로 경상남도 통영산, 전라남도 나주산, 황해도 해주산 등이 있으며 이 명칭은 산지(產地)를 지칭하거나, 제작 형식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할 때 쓴다. 형태는 책상과 비슷한 장방형은 책상반(冊床盤), 다각형과 둥근 것은 원반(圓盤), 사각형인것은 사우반(四隅盤) 또는 사방반(四方盤)으로 불린다. 대체로 통영반과 해주반은 장방형이고 나주반과 개다리소반(拘足盤)은 다각형 또는 원형이 많고 다각형은 대체로 십이각(十二角)이 보통이고 드물게 팔각(八角)인 것도 있다<sup>23)</sup>.

〈그림 5〉에서 보면 우선 빨간색과 검은색의 소반이 보인다. 칠감에 관해 살펴보면, 고급품에는 주칠(朱漆)과 흑칠(黑漆)을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거의 궁중용에만 주칠을 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일반용의 주칠(朱漆)은 금지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5)</sup>. 보통 소반은 생칠(生漆)을 했다고 했으며 고급품은 삼베나 닥종이를 대고 그 위에 특별히 정제한 옷에 주(朱)를 섞어서 칠한다고 하였다. 미술구도적 표현에서 부감법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주인공과 가족들의 주칠상의 모양이 정확한 원형보다는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져 있으며, 표현할 수



〈그림 5〉 회혼예도(回婚禮圖)의 부분

없는 부분이 생략된 듯하고, 원근법의 표현에서도 거리가 먼 남성들의 상의 크기가 크게 부각되어 그려져 있다. 그 외에 소반(小盤)은 검은색의 호족반(虎足盤)으로 호랑이의 다리와 발톱과 같이 굽어져 있으며, 하단이 안쪽으로 향한 네 다리를 지니고 있다. 족대(足臺)는 있지만 중대(中臺)는 없는 구조를 하고 있으며 흑칠로 표현되어 있다<sup>22, 24)</sup>. 이는 주인공의 주안상 또는 주대(酒臺)로 백자청화호(白瓷靑華壺)가 놓여져 있다.

이 그림에서 대부분의 식기는 순백자의 모양인 듯하며 값비싼 백자청화는 크기가 큰 항아리의 모양을 하고 있다. 식기를 통하여 당대의 품격있는 수준 높은 주인공의 사회신분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남자 주인공의 주립(朱笠)을 통하여 그의 신분을 알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권 45, 주립변증설조(朱笠辯證說條)에 〈又有 紗笠 朱笠 豬毛笠 鬃笠 特名 紗笠朱笠 爲文臣堂上所着 以爲戎服之具 毛笠鬃笠 則 爲武臣公私具用焉〉로 즉, 문신(文臣) 당상관(堂上官) 이상이 용복(戎服)의 일부로서 주립(朱笠)을 착용한 것이며, 이에 비해 무신(武臣)은 공사(公私)에 모립(毛笠) 종립(鬃笠)을 갖추어 사용한다 하였다. 또 〈속대전(續大典)〉 권 3의 예전(禮典) 의장(儀章)에도 〈堂上 三品 以上… 戎服 紫笠 貝纓〉의 동일한 기록이 있어 즉, 자립(紫笠)은 당상관 이상이 용복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이 그림에서 주인공은 주립(朱笠)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 문신(文臣)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명문 집안 주인공임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미술사적인 면에서 그림 속의 그림이 되는 앞뒤에 친 큰 병풍(大屏)의 그림은 죽병(竹屏)과 산수병(山水屏)이다. 산수병에 있어서는 남종산수(南宗山水)의 짙은 여운을 보여 이 그림의 제작시기가 18세기로 보는 이유가 된다<sup>14)</sup>. 세필(細筆)로 정교하게 그렸으며 크지 않는 화면에 인물을 작게 나타낼 수 밖에 없었으나 다양한 자세와 표정까지 읽을 수 있어 특히 김홍도의 인물들과 강한 연결이 시사되기도 한다. 구도의 독특함과 더불어 기둥이나 지붕의 기왓골에 명암에 의한 입체적 처리가 잘 살아있고 흰옷을 나타내기 위해 화면 바탕색만으로는 부족하여 호분(胡粉)을 입혔으며 선명한 청홍(靑紅)의 설채(設彩)가 두드러진다<sup>14)</sup>. 이와 같이 회혼례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 전통사회에서 효의 사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으며, 한편으로는 자기 가문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다<sup>5)</sup>.

### III. 결론

18세기 朝鮮時代는 學問, 藝術, 文化의 復興時期로 實學이라는 朝鮮精神史로 새로운 면을 構築하였으며, 美術史의으로는 事實主義 創作方式으로 珍景山水와 風俗畫가 流行하던 時期이다. 특히 食生活 文化的으로는 韓食의 華麗하고 品位있는 食文化의 完成時期 이었다.

鄭槐(1735-1800)의 〈易安窩壽席詩會圖〉는 1789년에 製作된 回甲宴 繪畫로 朝鮮 後期 風俗畫의 範疇에 드는 그림이나 그 以上の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가슴에 와 닿는다. 食文化 次元에서 老人을 尊敬하는 의미로 술을 待接하는 禮儀를 볼 수 있으며 그와 關聯된 朝鮮時代의 食器文化 인 白磁靑華와 白磁鐵彩 食器, 그리고 飲食 나르는 奔走한 잔치집 券圍氣와 老人들의 毅然한 모습에서 삶의 풍요로움도 읽을 수 있고, 老年의 餘裕와 느긋함, 그리고 整頓된 삶의 現場에서 生活의 멋과 삶의 韻致를 알게 한다.

18世紀로 推定하는 作者 未詳의 〈回婚禮圖〉라는 一種의 記錄 寫眞과도 같은 眞率함을 느끼게 하는 繪畫이다. 名門巨族 이어서가 아니라 바르고 곧게 산 한 士大夫의 華麗한 晩年을 보여 주어 오늘 우리에게도 호뭇하고 넉넉한 그 무엇을 안겨준다. 食文化 次元에서도 敬老思想에서 나온 家族間의 品位 있는 人間禮, 座席 配置法, 獨特한 飯床文化, 床차림, 白磁靑華와 純白磁의 水準높은 食器를 통하여 華麗한 士大夫 계층의 食文化를 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남만성. 「예기(상)」 pp. 43-81, 평범사, 1976.
- 2) 남만성. 「예기(중)」 pp. 283-339, 평범사, 1976.
- 3) 남만성. 「예기(하)」 pp. 498-510, 평범사, 1976.
- 4) 이호지. 「한국의 음식문화」 pp. 287, 신광출판사, 1998.
- 5) 정신문화원. 「한국민속과 전통문화」 www.

- Koreanfolk, 2003.
- 6)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pp. 12-31, 학교재, 1996.
  - 7)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pp. 22-45, 한길아트, 2000.
  - 8) 안동장씨부인. 황혜성감수. 한복려, 한복선, 한복진 엮음. 「다시보는 음식디미방」 사단법인궁중음식연구원, 1999.
  - 9) 빙허각이씨. 「규합총서」 보진제, 1974.
  - 10) 이덕무. 「청정관전서」 서울대학교, 1966.
  - 11) 홍만선. 「산림경제」 경인문화사, 1974.
  - 12) 강인희. 「한국식생활사」 pp. 288-300, 삼영사, 1993.
  - 13) 김상보.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 pp. 348-438, 광문각, 1997.
  - 14) 안휘준. 「풍속화」 pp. 221, 중앙일보사, 1993.
  - 15) 이원복.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pp. 143-149, 효형출판, 1997.
  - 16) 허 균. 「뜻으로 풀어본 우리의 옛그림」 pp. 143-149, 대한교과서(주), 1997.
  - 17) 이광규. 「레비스트로스」 pp. 68, 대한기독교서회, 1973.
  - 18) 박용숙. 「한국미술사이야기」 pp. 285, 예경, 2000.
  - 19) 정양모. 「한국의도자기」 pp. 362-463, 문예출판사, 1997.
  - 20) 윤용이, 유홍준, 이태호.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pp. 212-226, 1997.
  - 21) 김원용.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pp. 288, 도서출판 예경, 1994.
  - 22) 윤서석. 「우리나라 식생활문화의 역사」 pp. 350, 신광출판사, 1999.
  - 23) 상계서. 「한국의 음식문화」 pp. 265, 신광출판사, 1998.
  - 24) 아사카와 다쿠미.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pp. 22-28, 학교재, 1996.
  - 25) 법제처. 「경국대전」 일지사, 1985.
  - 26) 강순제. 「우리 冠帽의 始末에 관한 研究 -男子 便服 冠帽를 中心으로-」 pp. 119,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